

가을의 명상

나의 인생길은
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
소망과 희망에 벅찬 계획으로
젊은 혈기와 끈기로
완벽한 세상을 만들자고
다짐하며 시작하였지

이렇게 먼 길을 와 보니
고달픈 몸을 가누며
조용히 걸음을 멈추고
나의 인생길을 돌이켜 보니
가치 가던 친구는 보이지 않고
허무한 마음만 나를 달래네

그 뜨겁던 햇살도
속으러 지고 산들 바람이
내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
그 어느 날 그대와 기대했던
추수와 상패는 어디에
명상, 반성으로 채우네

무한히 넓은 바다 한 복판에서
목적없이 바람 부는 대로
돛대도 샷대도 없이
멀리 보이는 저 구름 건너
나날이 발전하는 세상
나는 겸손히 그 품에 안기네

한국남
2020년 가을을 맞으며
옛날의 꿈을 회상하면서